2019학년도 서강대학교

모의논술 자료집(2차)

- 인문계열(경제경영) -

서강대학교 입학처

목 차

▢ 문제 3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6

■ **유의사항**
1. 시험시간은 50분입니다.
2. 답안분량은 800~1,000자입니다.

문제

[가] 는 최저임금제에 대한 설명이다. 시장경제에서 균형임금의 결정원리와 의의를 설명하고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이유와 최저임금이 인상되었을 때 기대되는 상반된 경제적 효과에 대해 [가]~[아]를 근거로 논술하시오.

제시문

[가] 시장 균형 가격보다 더 높은 수준에서 가격의 하한선을 정하고 그 이하로는 거래되지 못하도록 하는 가격 통제를 최저 가격제라고 한다. 최저 가격제의 대표적인 예가 최저 임금 제도이다. 정부는 수준 이하의 노동 조건을 없애고, 임금 생활자의 노동력 착취를 방지하며, 소득 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해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 고등학교 교과서 비상교육 p.113

[나]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가계와 기업이 경제 활동의 중심축이 되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이들 경제 주체가 시장 가격에 기초해 자유롭게 의사 결정을 함으로써 기본 경제 문제를 해결한다. (...) 시장 가격에 기초하여 가계와 기업이 각각 내린 결정이 모여 사회 전체적으로 효율성이 증대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고등학교 교과서 천재교육 p.24

[다] 시장의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가격에 도달한 상태를 시장균형이라고 한다. (...) 균형가격에서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과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 모두 자신이 원하는 양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 가격 수준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높게 형성되면 공급량이 수요량보다 많은 초과 공급상태가 된다. 이때는 공급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 가격까지 가격이 하락한다. 반대로 가격 수준이 시장 균형 가격보다 낮게 형성되면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초과수요 상태가 되고, 수요자 간의 경쟁으로 균형가격까지 가격이 상승한다.

-고등학교 교과서 비상교육 p.101

[라] 시장 경제에서는 자원 배분이나 소득 분배 등의 경제 문제 해결이 기본적으로 시장가격에 의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가격을 지불한 사람이 기업이 생산한 상품을 소비할 수 있다. 소득이 적은 사람은 비싼 상품을 살 수 없으므로 그것을 소비할 수 없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신의 노동을 기업에 제공하고 그 대가로 소득을 얻는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의 노동을 낮

은 가격에 제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낮은 가격으로도 자신의 노동을 제공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격 기준을 사용하는 시장경제는 불리하다. 소득의 분배를 시장의 가격 기준에만 맡겨 놓을 경우, 교육수준이 높고 가정환경이 좋으며 능력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간에 소득 격차가 커진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면 사회가 불안해지고,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생활조차 누릴 수 없는 국민이 있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씨마스 (김종호, 안병근) p.74

[마] 노동 시장은 생산 요소인 노동이 거래되는 시장이다. 노동의 가격은 임금이며, 임금은 노동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 수요량, 즉 고용량이 증가하고, 반대로 임금이 상승하면 노동 수요량은 감소한다. 왜냐하면, 노동의 수요자인 기업도 수요의 법칙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이다.

- 고등학교 교과서 씨마스 (김종호, 안병근) p.115

[바] 한국노동연구원이 2015년 펴낸 '최저임금 인상 고용영향평가 연구' 보고서는 "저소득층일수록 식료품과 보건, 음식 등 내수시장 활성화와 관련성이 높은 생활 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이 높아서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한 저소득층 소득 증가는 내수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을 감축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취업자를 유발해 전체적으로는 고용 규모에 변화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 한겨레신문 2018.1.11.

[사]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 빈곤층 임금이 당연히 올라간다. 하지만 수혜 대상은 중산층에 속하는 근로자가 더 많다.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저소득 근로자들의 분포 비중을 조사한 결과, 빈곤 가구 구성원은 24.3%인 반면 저소득 가구는 12.8%, 중산층 이상 가구원은 63%나 된다. 최저임금을 인상할 경우 수혜가 중산층 가구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이라는 점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된다. 최저임금 미달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구주가 아니라 청년 세대와 배우자를 비롯한 이른바 '부소득자(second earner)'가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조선일보 2016. 7.15.

[아] 이코노미스트가 우려를 표한 이유는 최저임금 수준 이하를 받는 많은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에서 일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의 68.2%가 10인 미만 사업체에 고용돼 있다. 이들 대부분은 연령대가 19세 이하 혹은 60세 이상이며 고졸 이하, 농림·어업, 숙박·음식점업 종사자다. 이코노미스트는 "최저임금 인상이 지불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장을 도태시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양극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면서 "의도와는 다르게 오히려 임금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지불 여력이 작은 중소기업들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고용 인원을 줄이면서 오히려 저소득층, 비정규직의 임금만 축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매일경제 2017.10.13.

[자] 한 사회의 임금수준이 어느 정도 되어야 하는지는 누구도 쉽게 답할 수 없는 문제다. 지금과 같은 의미의 임금노동은 자본주의와 함께 탄생한 것이지만, 일한 데 대한 대가로 얼마만큼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선 전통사회에서부터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최소한 일한 사람이 생계를 유지하면서 다음 세대를 재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보상이 주어져야 했던 것이다. (...) 현대에 도입된 최저임금 제도 역시 일을 하고 받는 임금이 최소한 먹고 살고 가정을 꾸려가는 데 모자라지는 않은 액수여야 한다는 생각에서 비롯됐다. (...) 그러나 현실은 좀 더 복잡하다. 우선 한국 사회에서는 최저임금만으로 최저한의 생계가 가능한지부터가 불투명하다. 작년보다 크게 오른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해도 노동자가 하루 8시간씩 일해서 받는 월급은 157만3770원이다. 올해 1인가구의 기준중위소득은 167만2105원으로 최저임금보다 10만원 가까이 높다.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최저임금밖에 못 받으면 314만원을 살짝 넘는 월급과 3인가구 기준중위소득인 368만3150원 사이의 간극은 더 커진다. 최저임금만으로는 두 명이 일해도 일하지 않는 한 명을 더 부양하는 것이 힘에 부치는 것이다.

- 경향신문 2018.10.14.

▢ 출제의도 및 채점기준

1. 출제의도

· 본 문항은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최저임금제'의 의의,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지 평가하고자 하였다. 최근 급속한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배운 지식과 언론에서 얻는 정보를 통해 논리적으로 그리고 합리적 근거에 의해 최저임금인상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출제하였다. 고등학교 과정을 통해 배운 개념과 지식을 토대로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를 적절히 이해하고 공개된 정보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학생의 잠재력과 응용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측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경제> 과목에서는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설명하고 있고 임금이 노동자들의 경제생활의 근거가 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한편 국민경제에서 경쟁력이 약한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로서 설치된 최저임금제를 설명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제적 약자 보호를 위한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노동자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노동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고 있다. 이처럼 시장, 가격, 최저임금, 균형임금 등 시장 작동원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제시문의 내용에 대입하여 응용하면 최저임금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충분히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한다.

제시문 [가]는 최저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을 도입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나]는 시장경제 체제가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기초로 한 거래를 통해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을 강조한다. 여기에서 초점은 '자유로운 의사 결정'과 '효율성 증대'에 있다.

제시문 [다]는 가격이 균형가격에서 벗어나는 경우 시장에서 초과공급 또는 초과수요 상태가 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최저임금제를 통해 가격을 균형가격 이상으로 올렸을 경우 초과공급이 된다는 점을 인지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원하는 양을 모두 거래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제시문 [라]는 사람들은 노동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댓가로 소득을 얻는데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로 인해 소득격차가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이 심화될 때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설명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소득재분배 및 시장개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어 최저임금제 도입의 논리적 근거로 생각할 수 있다.

제시문 [마]는 노동이 시장에서 거래되고 이때 노동에 대한 대가가 임금임을 설명하고 있다. 이 제시문을 근거로 학생들이 임금을 시장에서의 가격으로 인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이 도입되었을 때 시장 작동원리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제시문 [바]는 최저임금인상이 저소득층의 소득과 소비를 진작시켜 경제전체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주장을 제시하고 있다.

제시문 [사]는 최저임금 대상자에 대한 통계적 정보를 제시하고 있으며 앞서 최저임금제가 저소득층을 도와 소득불평등을 완화한다는 논리적 근거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제시문 [아]는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을 받는 쪽이 아닌 임금을 주는 사용자에게 직접적인 인건비 부담을 늘려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제시문 [자]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의 부족한 생계에 보탬이 되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2. 문항해설

본 문항은 '최저임금제'와 관련하여 고등학교 <경제> 과목에서 노동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는 원리, 최저임금의 역할과 한계 등에 대하여 학습하며 최근 정부의 핵심정책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시의성 있는 주제를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최저임금제의 효과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마]를 통해 시장기능에 대한 이해와 시장에서 시장균형임금이 갖는 의의를 논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나]에서는 시장에서 결정되는 가격이 일반적으로 효율성 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마]에서는 노동시장도 시장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임금을 가격으로 볼 수 있어 앞서 언급한 [나]의 시장원리를 적용하면 시장균형임금이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대한다는 점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한다.

시장균형임금이 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킴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배경과 목적에 대해서 제시문 [가]와 [라]를 이용해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소득불평등에서 오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임을 인지해야 한다.

최저임금인상의 효과에 대해서는 제시문 [바]와 [자]에서는 긍정적인 면을 기술하고 있고 [다], [사], [아]에서는 부정적인 면을 기술하고 있어 이를 구분하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상반된 의견을 요약하고 논리적으로 서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문항의 핵심은 최저임금제를 적절히 논하기 위해서는 우선 임금을 가격으로 보고 이를 시장원리에 적용시켜 임금결정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 다음 최저임금제의 목적을 서술해 낸 다음, 최저임금의 기대효과에 대한 논의를 구분하여 기술하는 것이 요구된다. 본 문항은 제시문 모두 교과서와 신문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므로 고등학교 교과과정에 충실하고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갖고 대중매체에 접해 본 학생들은 충분히 이해하고 논리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소득불평등, 빈곤층, 최저임금, 고용, 시장, 균형임금 등의 핵심개념들은 고등학교 경제 교과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학습하는 내용이어서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학생이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3. 채점기준 및 참고사항

· 시장에서 임금결정 원리와 자원 배분의 효율성에 대한 의의를 [나]와 [마]를 근거로 정확히 기술하고 있는가?

· 시장경제에서 최저임금제가 왜 도입되는지 이해하고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시키는 제도임을 [가]와 [라]를 근거로 설명하고 있는가?

· 최저임금인상의 효과에 대한 상반된 입장의 논거로 [다], [바], [사], [아], [자] 를 정확히 제시하였는가?

· 제시문 [바]와 [자]에서 기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긍정적 효과와 제시문 [다], [사], [아] 각각에서 기술하고 있는 최저임금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논거를 다음과 같이 반영하여 제시하였는가?

· 긍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바]와 [자]에 기술되어 있다.

- 제시문 [바]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저소득층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가정하고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내수시장과 관련이 높은 생활필수 품목에 대한 지출을 증대시키고 이에 따라서 내수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더 나아가 일시적으로 고용이 위축되지만 장기적으로 취업을 유발해 고용이 줄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제시문 [자]는 최저임금이 저소득층의 생계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현재 맞벌이를 해도 중위소득에 못 미치므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삶의 질이 개선될 것이라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 부정적 효과에 대해서는 [다], [사], [아]에 기술되어 있다.

- 제시문 [다]는 노동시장에 임금결정원리를 설명하고 있고 노동수요는 기업측에서 그리고 노동공급은 노동자 측에서 결정된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최저임금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되면 노동시장에서 노동의 공급량보다 노동의 수요량이 많아져서 초과공급상태가 되고 노동시장에서는 정해진 임금에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직장을 찾지 못하는 실업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문 [사]는 최저임금 대상자가 근로 빈곤층은 맞지만 주로 청소년, 청년, 기혼 여성 등으로 대부분 중산층 가구에 속한다는 통계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에 근거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저소득가구를 위한 대책이 될 수 없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높여 지출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는 사실과 다르며 최저임금의 경제활성화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 제시문 [아]는 최저임금 대상자의 대부분이 영세사업장에서 종사하고 있으며 최저임금 인상은 이들 영세업체들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상황을 더 악화시킬 것이며 기업이전, 고용축소 등으로 저임금자의 일자리를 더 줄여 경제적 약자에게 돌아가는 임금이 더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술하고 있다.

4. 예시답안

(나)에 의하면 시장경제제도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따라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시스템으로서 사회의 효율성을 높여준다. (마)에 의하면 노동의 댓가인 임금을 노동시장에서 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시장의 균형임금 형성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돕는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라)에서는 시장경제에서 경쟁력이 낮은 사람은 낮은 임금과 소득을 거둘 수 밖에 없고 시장에 의존하면 소득격차가 커져서 사회적으로 가장 약한 노동자는 최소한의 생활도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되어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에서는 임금의 하한선을 정하는 최저임금제 도입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으며 최저임금제는 수준이하의 노동 조건을 없애고 소득재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상반된 의견이 존재한다. 우선 (바)에서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이 주로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다는 가정을 하고 저소득층의 소비지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내수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장은 고용이 감소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내수확대가 취업자 증대를 유발하여 고용감소를 상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강조한다. 또한 (자)에서 최저임금을 받아 최소한의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게는 임금인상으로 경제적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긍정적인 면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반면 (다)에 의하면 균형임금보다 높게 설정된 최저임금은 실업을 발생시키고 (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상자의 60%이상이 중산층이상 가구의 가구원에 속하므로 소비지출 증대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고 저소득층 대책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아)에서는 최저임금 대상자들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대부분 10인 미만의 영세 사업체들이고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면 영세업체들이 도산하고 중소기업은 인원감축 및 공장 해외이전으로 반응하여 오히려 저임금 일자리가 줄 것이어서 사회적 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